

일제말기 김남천 문학과 만주*

- 미지와 공백의 기표

서 영 인**

차례

- | | |
|--------------------------------------|------------------------------|
| I. 일제 말기 김남천 문학의 위치-
동화와 이탈의 균열지점 | III. 식민지 자본주의 탐구와 서구적
근대성 |
| II. 미지와 공백의 만주형상 | IV. 맺음말 |

I. 일제 말기 김남천 문학의 위치-동화와 이탈의 균열지점

일제 말기 문학에서 김남천은 매우 문제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단지 김남천이 일제말기 파시즘과 국가주의를 떠받쳤던 중요한 이데올로기인 동양론을 문학과 소설을 통해 직접적으로 문제삼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 그 문학과 소설을 통해 제시된 동양론의 논의구조가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양론은 서양중심의 문명론을 극복하고 서양문명과 별개의, 혹은 그에 대립하는 독자적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5-A00070)

**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문명체계로서의 동양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서구적 근대문명의 퇴폐와 이기적 속물성에 대한 환멸은 ‘차안의 몰락’에 대한 감각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또한 서구적 근대를 대신할 새로운 피안의 탐색을 요구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구적 근대의 몰락이라는 테제는 한편으로는 동양적 세계창출이라는 필요에 의해 더욱 강조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이다. 당시의 동양론은 이처럼 서구적 근대의 몰락에 대한 환멸 속에서 근대초극의 대안으로 동양을 내세우면서 이를 통해 일본을 맹주로 한 대동아공영의 팽창주의를 합리화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의 정치학을 떠받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양론의 이데올로기가 제국주의 전쟁에의 협력과 내선일체의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식’의 근대에 대한 오랜 콤플렉스와 서구적 근대의 몰락에 대한 공통적 감각 때문이었다.

김남천이 “동양은 서양의 뒷물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은 동양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세계사를 가지고 있다”¹⁾면서 코우야마 이와오의 『세계사의 이념』을 언급할 때 그는 ‘동양론’을 전환기의 새로운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는 이미 그가 당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논의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차안으로부터 건너뛰어 갈 피안의 구상이란”²⁾“명확성을 띤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등불」이나 「어떤 아침」등의 식민지 시기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작품을 통해서도 그가 당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수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는 힘들다²⁾. 일제말기 김남천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이처럼 애매한 지점에서 멈춰선 김남천 문학의 위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김남천의 문학은 ‘다면적 가

1) 김남천, 「전환기와 작가」, 조광 1941.1.

2) 일제말기 김남천 문학에 대해서는 줄고, 「김남천의 신체제 인식과 우회적 글쓰기」, 『탈식민주의를 넘어서』(민족문학연구소 편), 소명출판 2006 참조.

치를 주장'하는 자기 성찰을 통해 파시즘적 전체주의를 비판했다³⁾고 볼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동양이라는 “새로운 대주체로의 귀속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전향의 코스”⁴⁾를 읽을 수도 있다. 이는 김남천 문학의 이중성이 유발한 해석적 전유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문학연구의 경향⁵⁾과 관련하여 더 관심을 끄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전자의 것이 근대성이라는 일반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을 추상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면 후자는 일제말기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구체적 시대상과 지배적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의들이 중요한 이유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개인 주체의 길항관계, 나아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과 사유에 대한 논의를 민감하게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식민주의 해석의 윤리성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적 타자성과 지배/저항의 관계함을 넘어서서 개인 주체가 어떻게 한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분별할

-
- 3) 광승미, 「김남천 문학연구-인식적·미학적 원리로서의 근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년. 광승미는 근대성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김남천 문학을 분석하면서 그가 다면적 문학형식을 통해 일원적 가치체계를 비판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교조주의적 문학이념과 전체주의적 지배체제를 모두 향하는 것이었다고 파악한다. 논의의 초점은 조금 다르지만 김외곤 역시 맑스주의적 자기동일성 비판을 통해 대동아공영의 자기동일적 사상에도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김외곤, 『한국근대 리얼리즘문학 비판』, 태학사, 1995.
- 4)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100쪽.
- 5) 일제말기 김남천 문학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체의 문제로 바라본 연구는 앞의 김철의 논문 외에 정종현, 「폭력의 예감과 '동양론'의 매혹」, 『한국문학평론』 2003년 여름, 공임순, 「식민지 시대 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형상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 7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6, 이철호, 「동양, 제국, 식민주체의 신생-1930년대 후반 김남천과 김사량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6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3, 차승기, 「임화와 김남천, 또는 “세태”와 “풍속”의 거리-1930년대 후반 “전환기”의 문학적 대응들」, 『현대문학의 연구』 2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등이 있다.

수 있고 그로부터 자신의 주체위치를 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김남천의 문학에 투사된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은 한편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거리두기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개인 주체가 문학을 통해 시대의 진로를 가늠하는 일은 개인의 자유와 의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의는 모든 개인은 결국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대주체에 종속으로 그의 문학적 사유를 마감한다는 논의로 귀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적 인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장 내에서 어떻게 새로운 윤리와 지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를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지만, 일제 말기의 파시즘적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이라는 측면에서 김남천의 문학은 애매하다. 이 글은 이 애매성 자체로부터 논의를 출발시키고자 한다. 김남천은 동양론을 논의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문학작품 속에 시사적 일상성을 새겨 넣음으로써⁶⁾ 이미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자기 방식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일정부분 그것을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 동양론으로 안받침된 제국주의의 지배원리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고 거기로부터 이탈했다. 이 동화와 이탈의 균열지점, 그것이 일제말기 문학에서 김남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이다. 이 균열이 무엇으로부터 연원했는가를, 그리고 그 균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특히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만주형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제 말기 김남천 문학과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양상을

6)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당대의 일상적 풍속이 지니는 시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최혜림, 「『사랑의 수족관』에 나타난 ‘일상성’의 의미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2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4, 와다 도모미, 「김남천의 취재원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3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검토하기 위해 만주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만주문제야말로 당시 식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를 표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주국은 알려진 대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의 동북지역을 차지한 관동군이 1932년에 세운 괴뢰국이다. 중일전쟁 이후 만주국은 일본이 내세운 바, 동아신질서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동아신질서란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하여,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상한다는 명분하에 주장된 것이다. 이러한 동아신질서는 이후 동/서양의 대결구도로 확장되고 동아시아 제 민족들을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만주는 이러한 동아신질서의 정치 슬로건에 부합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소였다. 만주는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진출과 파시즘적 세계정복의 의도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는 공간이었다. 또한 만주를 통해 당대의 식민지 사회구조는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적 지평, 혹은 세계정세와 관련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덧붙여 지적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제국과 조선반도의 관계만을 국한해 놓고 본다면 식민-피식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명료해진다. 그러나 국외에, 만주라는 신생국을 당대의 현실에 포함시키게 되면 여기에는 일국적 관계로 파악할 수 없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확대된 인식지평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식민지로서의 국내문제 뿐 아니라 동아경영이라는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판단, 나아가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국외정세까지도 포함된 지평 내에서만 만주의 문제는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⁷⁾. 평론 「전환기와 문학」이나 소설 「경영」, 「맥」 등에 구체적으로

7) 물론 당대의 언론이나 여러 지면에는 세계대전과 일본의 전과를 비롯한 세계정세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한다. 당시 지식인들이나 작가들이 이러한 세계정세에 대해 무관심했을 리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는 문제는 또 다르다. 만주의 형상화를 통해 이러한 정세인식은 구체적인 수준과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만주가 지니는 위치는 중요하다.

적시된 동양론과 사상사적 대안모색의 양상에 비해 김남천 문학에서 만주문제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배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내밀한 관계양상을 살피는 데 있어서 만주문제는 중요하다. 동양론의 사상이 평론이나 등장인물들의 직접적 발언에 의해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에 비해 만주문제는 작품 구조의 이면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이 징후들이 오히려 일제말기 김남천 문학의 위치를 해석하는 데 더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응답하면서도 그 내부의 모순과 굴절을 감당해야 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풍경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발언되기보다는 작품의 내적 구조 속에 더 은밀하게 잠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김남천 문학에 드러난 만주형상의 특징을 검토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그 특징의 연원, 일제 말기의 세계사와 한국현실을 바라보는 작가 김남천의 시각을 추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II. 미지와 공백의 만주형상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김남천의 문학에서 만주 문제가 집중적인 화두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랑의 수족관>의 몇 대목을 비롯해서 약간의 작품에서 징후적으로 만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만주 문제와 관련하여 <사랑의 수족관>은 특히 중요한 텍스트인데 기존의 연구에서 <사랑의 수족관>은 김남천이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한 텍스트로 간주된다.⁸⁾ 이러한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주인공 김광

8) 이경훈은 일제말기에 만주가 '자연정복의 이상'이라는 상징을 통해 잃어버린 맑스주의적 전망을 대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을 예시하고 있으며(이경훈,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오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2003), 주요인물인 김광호에게서 직분식적으로 식민체제에 안착한 제국의 신민을 잃어내고 있는 김철의 논문(김철, 앞의 논문)은 작가가 당시의 제국

호가 과거의 이념적 주체를 부정하는 기술적 주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수족관>이 전시체제하의 식민지 조선의 일상을 의식적으로 작품화하면서 시사적 풍속을 재구성하고자 했다는 점⁹⁾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김남천이 작품창작에 있어서 “자신이 만 들어낸 인물에 냉담하다는, 알리바이를 마련해 놓고”¹⁰⁾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김광호라는 인물 자체가 지배 이데올로기에의 동화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허약하다. 우선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사랑의 수족관>의 한 구절을 보자. <사랑의 수족관>은 재벌 부호의 딸 이경희와 토목기사 김광호가 서로 호감을 가지며 연애를 시작하지만 재벌집안의 재산과 주도권을 탐내는 은주부인과 송현도의 음모로 헤어질 위기를 겪다가 결국은 결합하게 된다는 전형적인 연애소설이다. 다음 구절은 음모에 의해 만주의 길림철도로 파견을 나간 김광호가 이경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기술이 하나하나 자연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에 흠뻑 반하고
맙니다.

철도는 석탄의 운수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석유가 어디에 쓰이는 것
까지지는 기술가는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쓰이건 석탄을 가지고
석유를 만드는 것만은 새로운 하나의 기술의 획득이었고, 그것을 운반
하는 데 철도로 하여금 충분히 그의 힘을 다하게 만드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일시다.¹¹⁾

이 구절은 “식민지인으로서의 운명의 자각, 그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의 논리에 동화되었음을 만주문제를 통해 해명하고 있다. ‘생활세계’의 긍정을 통해 김남천이 제국의 논리에 끝까지 포섭되지 않았다고 보는 정중현의 논문(『식민지 후반기(1937-1945)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역시 <사랑의 수족관>을 작가의식의 분열의 근거로 거명하고 있다.

- 9) 최해림, 앞의 논문 참조.
10) 차승기, 앞의 논문, 111쪽.
11)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40.2.11.

불안과 동요가 말끔히 사라지고 제국의 당당한 주체로서 직분 의식과 소명을 자각하고 있는”“제국의 주체로서 다시 태어난 인물”¹²⁾을 읽어내는 근거가 된다.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 묻지 않고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하겠다는 태도 표명은 당시의 시국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무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다. ‘직역봉공’이라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모든 직업과 생활은 전시 체제에 복무하는 정신 속에서 영위되어야 했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시국협력적인 것으로 정향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이 구절을 전체 서사의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먼저 이 구절은 음모에 의해 파견을 간 김광호가 이경희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경희는 이미 은주부인의 음모에 의해 김광호를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김광호에게 편지나 일체의 기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김광호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김광호에게 이 편지는 자신의 일상을 보고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경희에게 이것은 뜬금없고 돌출적이어서 매우 당황스럽게 다가온다. “남의 정신상태를 뒤집어 놓고 인조석유의 강의는 어떡허란 소리유?”¹³⁾이라는 이경희의 힐난에서 만주의 김광호와 국내의 이경희가 기술자의 세계관으로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서사의 진행과정에서 본다면 김광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어떠한 필연성도 개연성도 없다. 편지라는 형식 자체가 송신자의 일방적 발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고 그러한 전달이 상대방과 어떤 교감도 이루지 못하며 오히려 오해를 증폭시킬 뿐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김광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사실상 서사의 필연적 인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우 돌출적으로 삽입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당대의 이데올로기가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텍스트에 직접 삽입된 것을 의미한

12) 김철, 앞의 글, 앞의 책, 101쪽.

13)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40.2.11.

다. 그런데 만주를 발화하고 그것을 공개된 텍스트에 출현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 기술자의 세계관은 다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의 기술자의 세계관이란 말하자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당대의 문학에 만주가 개척지의 이상향으로, 동아신질서의 근거지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만주라는 지역의 정치적 의미나 그곳에서의 철도개발과 인조석유추출산업의 의미를 묻지 않고 기술자로서의 직분에만 충실하겠다는 태도 표명은 만주에 대해 말해야만 할 수많은 것들 중에 최소한의 것을 선택한 결과라고 읽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자의 세계관이란 판단중지를 선언한 중립적 태도표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도 가능한 상대적인 것이란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기술은 다른 맥락 속에서, 작품 전체의 구조 속에서 함께 읽혀져야 한다.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당시의 만주가 문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었는지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많은 작가들이 만주를 통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작가 자신이 맺는 관계를 표현했다.¹⁴⁾ 김남천 문학에서의 만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김광호의 언급에서 드러난 기술자의 세계관이나 소설 속의 몇마디 직접적 언급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품 전체의 구조서에서 드러나는 만주의 위치에 있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만주는 소설에서 벌어지는 타락한 개인들의 음모와 협잡과 대비되는 공간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김광호는 만주로 파견을 나감으로써 송

14) 일제말기 만주에 대한 문학자들의 인식이나 작품형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재용, 「일제말 한국인의 만주인식」,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민족문학연구소 편), 역락, 2007,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현도와 은주부인이 꾸민 음모로부터 보호된다. 그는 그로 인한 갈등도 번민도 겪지 않으며 오해와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이경희 뿐이다. 재벌가의 주도권과 재산을 목표로 서로 야합하여 이경희와 김광호를 때 놓으려는 은주부인과 송현도의 음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다. 자본을 중심에 둔 개인적 욕망의 혼탁함과 타락상에 대한 해부이며 고발인 것이다. 이는 “부패한 개인의식과 왜곡된 인간성의 소탕”¹⁵⁾을 당대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김남천의 지향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김광호는 만주로 파견을 나가면서 이 음모에 휩쓸리지 않는 인물이 되며 그렇다면 만주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타락이나 음모와는 무관한 ‘다른’ 공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만주는 국내의 음모와 협잡이 상징하는 자본주의적 속물성과 타락상에 대비되는 일종의 판타지¹⁶⁾로 기능한다.

만주는 김광호가 사라진 공간, 국내의 온갖 음모와 협잡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타락에 대비되는, 부패에 대비되는 새로운 판타지로 기능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타지가 부재하는 동안에만 가능한 판타지라는 점이다. 김광호는 만주로 파견을 나가함으로써 국내의 더러운 음모로부터 보호되지만 정작 그 만주가 어떤 곳인지는 서사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만주는 ‘다른’ 공간으로 상상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서사에서 만주가 구체적인 공간으로 등장했을 때, 그 공간은 텅 비어 있다. 텅 빈 만주는 국내의 타락과 부패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만약 만주가 건설과 개척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갖는다면 그것은 국내의 타락과 부패에 의해 보충된 이미지이다.

15) 김남천, 「전환기와 작가」, 『조광』 1941.1.

16) 이수형은 김광호의 만주행을 기점으로 작품에서 김광호가 차지하는 의미가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만주를 판타지의 공간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수형, 「김남천 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54-55쪽 참조. 그밖에 이철호 역시 불안한 주체인 김광호가 만주행을 계기로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게 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철호, 앞의 논문, 305-307쪽 참조.

이경희와 김광호의 연애서사가 주축을 이루는 소설에서 만주는 사건 해결에 어떤 실마리도 주지 않는다. 김광호가 만주로 가 있는 동안 이경희를 둘러싸고 음모는 더 깊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해결이 되어 버린다. 강현순에 의해 김광호에 대한 이경희의 오해가 풀리고 이경희는 그길로 김광호와 직접 대화하기 위해 만주로 향한다. 그런데 이경희가 찾아간 만주에 김광호는 없다. 병이 들어 앓았던 김광호는 이미 귀국한 뒤였고 이경희와 김광호는 길이 엇갈린 것이다. 만주는 김광호의 편지에 의해서만 그 생활의 편린이 전해지며 이경희가 김광호를 찾아 만주에 갔을 때 딱 한번 소설의 구체적 무대에 등장한다. 그러나 구체적 공간으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만주는 굳이 만주일 필요가 없는 의미없는 공간이 된다. 이경희는 만주에 도착하여 김광호를 찾아 병원으로 여관으로 다시 사무소로 쫓아 다니다가 그가 만주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곧 국내로 돌아온다. “「만주」라면 곧 광막한 벌판을 생각하였으나”, “멀리 아름다운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의외였지만”, “그러나 시가의 인상을 향락할 여유가 없”¹⁷⁾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만주는 철저하게 공백으로 존재한다. 소설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사건을 진전시키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물론 김광호가 만주에 다녀온 후 이경희와의 사이에 놓여 있던 음모는 해결되고 만주행 이후 이들의 결혼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이 가능해진 것은 김광호가 만주에 갔다 왔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오해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건이 해결되는 동안 김광호는 사건의 현장에 없었다.

만주라는 판타지가 허약한 판타지이며 『사랑의 수족관』에서의 만주형상이 공백의 기표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 김남천의 문학에서 만주 형상이 지니는 의미를 징후적으로 읽어낸다고 할 때, 그 징후란 특정한 한 구절에 표명된 세계관이 아니라 전체의 서사구조 속에서

17)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40.2.25.

공백으로 남아 있는 만주형상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이 공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가 될 터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공백에 당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채워 넣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 공백을 공백 자체로 읽으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하거나 혹은 텅 빈 만주형상이 전체의 서사구조와의 관련 하에서 가지는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만주가 국내에서 벌어지는 온갖 타락과 협잡과는 무관한 공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주의 이미지는 국내의 타락과 협잡에 의해 상상된 이미지이다. 그리고 그 실체는 없다. 공백으로 처리된 만주형상은 바로 보충에 의해서만 존재하므로 결코 온전히 보충될 수 없는 ‘실체없음’의 순간이다. 그리고 이 공백이 폭로된 이후 만주에 채워지는 이미지는 허약하거나 모호하다. 이는 소설의 말미에서 조선을 떠나 만주로 가는 양자와 강현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사회주의자였던 광호의 형 광준이 죽자 그의 애인이었던 양자는 국내의 생활을 정리하고 만주로 떠난다. 김광호에게 남몰래 애정을 품었던 강현순은 이경희와 김광호의 오해를 풀어 두 사람이 연결되는 것을 보고 양자와 함께 만주로 떠난다. 생계의 문제이든 정신적 안정의 문제이든 이들은 국내에서 살 근거를 얻지 못했고 만주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이들이 떠나는 만주에 특별한 대안이나 희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¹⁸⁾ 여기에서 만주를 소재로 한 또다른 소설 「철령까지」를 참고할 수 있다. 남루한 차림의 일가족이 일자리를 찾아 만주 철령을 찾아가는 광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눈은 연민에 가득차 있다. 여기에서 만주는 어떤 희망이나 대안이 아니라 국내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이 떠밀리듯 찾아가는 삶의

18) 공임순은 김광호라는 허약한 식민적 주체의 위치가 강현순을 비롯한 직업여성들에 의해 보충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강현순의 만주행은 김광호라는 식민적 주체의 이미지가 보충된 이후 서사에 의해 사라진다는 점에서, 젠더적 위계화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임순, 앞의 논문, 214-221쪽 참조.

또다른 터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연민과 서글픔에 가득차 있다. 이는 적어도 김남천이 만주를 일관된 의미에서의 판타지로 바라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만주의 형상은 분열 속에 존재한다고 읽을 수 있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만주가 공백의 기표로 드러나는 까닭 역시 이러한 분열과 관련되어 있다.

만주는 주요 서사공간에서 펼쳐지는 국내의 타락과 시련과는 ‘다른’ 어떤 곳으로 상정된 곳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판타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판타지란 지배 이데올로기가 주체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핵심적 기제를 의미하는데,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지배 이데올로기는 중심을 결여하고 있는 트로마적인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중심의 결여와 트로마적인 불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은폐되지 않는다면 주체는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응답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할 수 없는데, 판타지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은폐의 역할이다. 지젝에 따르면, “판타지는 우리의 욕망을 구성하고 그 좌표를 제공해 주고 … 형식적인 상징적 구조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대상의 실증성을 중재한다. 다시 말해 판타지는 ‘도식’을 제공한다. 그 도식에 따라 현실의 실증적인 대상들은 형식적인 상징적 구조가 열어놓은 빈 자리들을 채움으로써 욕망의 대상으로 기능한다.”¹⁹⁾ 당대 지배 권력의 성격과 그 이데올로기적 전략의 특징을 감안할 때, 실증적 대상으로서 만주가 욕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타락이나 시련과는 대조적인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김남천의 작품들에서 판타지로 제시되는 만주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은폐하고 상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남천의 만주는 (그러나 이 판타지는) 욕망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제공하는 판타지가 아니다. 즉 더 나은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다른 가능성 중의 하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다른’의 내용은 비어있다. 만

19) 슬라보예 지젝(김종주 역), 『환상의 돌림병』, 인간사랑, 2002, 22쪽.

주가 판타지라면 그것은 미지와 공백의 판타지이다. 소설의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타락과 퇴폐, 거기에 대비되는 ‘다른’ 공간의 상징, 그리고 ‘다른’의 내용이 비어 있는 구도는 『사랑의 수족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낭비』에서도 이러한 구도는 다시 반복되는데 무대를 옮겼을 뿐 『낭비』의 이관형의 집안과 『사랑의 수족관』의 이경희의 집안은 동일하다. 재벌집안을 둘러싼 향락과 사치와 퇴폐는 두 소설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곧 당대 부르주아의 타락상에 대한 해부라는 의미도 지닌다. 그런데 『낭비』에는 타락과 퇴폐의 상징인 문난주와 그 반대편에 소녀적 순수성을 간직한 김연이라는 인물이 설정된다. 김연을 이관형은 은근히 좋아하지만 김연은 어느 청년 사업가와 결혼해 버린다. 소설에서 김연의 남편은 사업시찰차 북지로 떠났다가 실종된다. 문난주 <-> 김연으로 설정된 대립구도에서 김연의 편에 북지라는 외국의 공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낭비』가 미완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족관』과 같은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역시 국내의 현실과 대비되는 외국의 공간설정, 그러나 구체적 내용도 의미도 가지지 않는 텅빈 기표로서의 외국이라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만주가 국내의 현실과는 ‘다른’ 어떤 곳으로 상징된다는 점에서 김남천의 소설은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장 내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텅 비워 놓는 것은 당대 문학의 일반적인 양상과는 좀 다르다. 이것이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만주형상의 특이성이다. 우선은 이러한 만주형상이 김남천문학의 어떤 기반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Ⅲ. 식민지 자본주의 탐구와 서구적 근대성

『사랑의 수족관』은 이경희와 김광호의 연애를 다룬 통속소설이지만

그 저변에는 식민지 부르주아들의 타락상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 깔려 있다. 이는 원산의 한 재벌가 별장에서 소설이 시작하는 『낭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주의가 남겨놓은 모든 부패한 잔재”에 대한 탐구는 일제말기 김남천 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 부패와 타락의 풍속도는 결국 서구적 근대, “시민의식의 위기와 근대적 인간이념의 몰락”²⁰⁾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기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 텅빈 만주가 의미하는 바도 자명해진다. 몰락에 이른 근대 서구문명을 대신할 근대초극의 ‘동양론’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동양론의 자리는 비어 있다. 김남천이 서구근대의 몰락과 새로운 문명적 전환기의 대안으로서 동양론을 함께 검토한 바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전환기의 작가」에서도 김남천은 두 문명을 나란히 놓았지만 동양론이 서구근대문명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데는 유보의 자세를 취한 바 있다. 서양/동양의 대립으로 제국주의적 정복전쟁을 은폐했던 당시의 논리는 ‘공백의 기표’, 만주에 수용되지 않는 것이다²¹⁾. 이는 그가 서구의 몰락과 동양의 부상이라는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환기의 사상으로 검토한 후 이후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전환기가 내포하고 있는 가지각색의 생활감정의 관찰”²²⁾을 채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김남천은 만주를 채울 구체적 논리, 가지각색의 생활감정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고 만주가 텅빈 기표가 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대안으로서의 만주가 아니라 그러한 만주를 상상하게 만든 국내의 현실이었다. 만주는 이 현실을 말하기 위해 동원된 상상적 이미지이고, 텅빈 기표로서의 만주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의 관심은 서구의 몰락을 대신할 동양론이 아니라 몰락에 이른 서

20) 김남천, 「소설의 장래와 인간성 문제」, 춘추 1941.3.

21) 김재용은 김남천이 서구 비판과 동양의 자각을 검토했지만 동양론을 몰신화시키지 않음으로써 국가주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70-71쪽.

22) 김남천, 「전환기와 작가」, 조광 1941.1.

구적 근대성의 여러 풍속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이는 이를테면 극한에 이른 당대 자본주의의 탐구와도 연결된다. 이경희는 김광호가 일하고 있던 양덕의 광산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를 보고 자선사업으로 탁아소를 경영하고자 한다. 이 탁아소 경영을 두고 이경희와 김광호는 의견의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경희가 최소한의 실천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라면 김광호는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자산가들의 자기만족에 그치기 쉽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경희와 김광호의 애정갈등이 해결되면서 이경희는 자선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는 곧 자본주의의 타락상에 맞서는 선의의 실천에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그의 눈에는 잔돈뿐이나 모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느니 사회사업을 하느니 자선사업을 하느니 하는게 모두 귀여운 장난처럼 생각되어 왔다. 그러던 눈으로 딸의 계획이란 걸 들으니까 이젠 그대로 아이의 소꿉장난이다. 그러니 구태여 소꿉장난을 말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²³⁾

자선사업을 위해 자본을 대 달라는 이경희의 부탁을 듣고 난 후의 아버지 이신국의 생각이다. 이 장의 제목은 ‘長鯨의 현실주의’이며 여기에 대응하여 자선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이경희를 주인공으로 한 장의 제목은 ‘帆船의 낭만주의’이다. 자선사업을 두고 벌이는 이경희와 김광호의 작은 논쟁, 그리고 그들의 애정에 작용하는 갖은 음모와 협잡은 이 ‘장경’의 시야에서 보면 역시 소꿉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당대 풍속의 타락과 퇴폐는 서구근대의 몰락처럼 보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고 이를 결정하는 더 큰 구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²⁴⁾. 『사랑의 수족

23)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10.19.

24) 『전환기와 작가』에서 김남천은 서구적 근대의 몰락과 동양론의 부상이라는 주제를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서구적 근대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여전히 서구적 근대의 위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 학자들이 서구적 근대의 몰락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안을 동양에서 찾지는 않고 있

관』이 신문에 연재된 통속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선인의 승리와 악인의 몰락이라는 결론을 얻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김광호와 이경희는 오해를 뚫고 결혼에 이르지만 이들을 모략했던 은주부인과 송현도 역시 견재하다. 김광호와 이경희의 결합은 일시적인 귀결일 뿐 이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타락과 퇴폐 속에, 그리고 이런 퇴폐와 타락에도 그다지 영향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견고한 구조 하에 있는 것이다.²⁵⁾ 서구적 근대의 몰락과 부패는 분명하지만 그 물질 토대인 자본주의는 그리 쉽게 붕괴되지 않는 견고함을 여전히 갖추고 있다. 김남천이 서구적 근대의 몰락을 운운하면서도 쉽게 그러한 서구적 근대의 풍속을 포기하지 않는 까닭이다. 서구의 몰락과 붕괴를 전제할 때 만주로 대표되는 새로운 건설과 미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서구적 근대가 그 모순과 균열을 드러내었지만 아직 여전히 세계를 장악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될 때 새로운 동양질서의 건설은 구체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김남천의 작품에서 서구적 근대의 풍속 반대편에 만주가 놓이지만 정작 그 만주는 공백의 기표로 남아 있는 진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남천이 서구적 근대의 균열과 타락에 문학적 탐구의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동양론의 자리, ‘만주’를 텅빈 기표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의 만주는 여러 이데올로기적 의미로 포장되었지만 그 이데올로기적 의미

다는 사실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관형의 입을 빌어 「맥」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된다. 그러므로 김남천이 서구적 근대의 대안으로 동양론을 참조하고 있다는 해석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김남천은 서구적 근대의 몰락을 인정하되 그것을 근거로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줄고, 「근대인간의 초극과 리얼리즘」, 『국어국문학』 137호, 국어국문학회, 2004, 470-478쪽 참조.

- 25) 이신국 역시 송현도의 일파인 신주사에 의해 일종의 음해에 빠지게 되지만 이로 인해 큰 곤경을 당하지는 않는다. 얼마간의 돈으로 신주사의 모략은 충분히 무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신국의 위치는 김남천이 당대 자본과 자본주의의 구조가 쉽사리 몰락할 수 없는 견고함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각했기 때문에 생겨난다. 사소한 자본의 다툼은 추악하지만 거대한 자본은 너그럽다.

는 곧 만주가 안고 있는 모순과 균열의 봉합점이기도 했다. ‘오족협화’와 ‘내선일체’가 공존하는 동아협동체론²⁶⁾, 건설과 개혁의 활기 이면에 존재하는 조선인들의 불안한 위치²⁷⁾ 등은 이러한 모순과 균열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과 균열 때문에 지배이데올로기로의 완전한 동화는 불가능해진다. ‘텅빈 만주’는 균열과 모순으로 존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체에 다르아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만주를 공백으로 비워 놓음으로써 김남천의 주요관심사였던 식민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연결고리 역시 끊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만주가 동아신질서의 근거지로서 이데올로기적 의미만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전쟁물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요충지로서 만주가 지닌 중요성 때문에 더욱 강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철도와 각종 건설공사, 만주 이민들에 게 대대적으로 독려되었던 농산물 생산 등은 당시 전시경제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근거였다. 그러므로 만주는 김남천이 관심을 기울였던 식민지의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풍속으로는 이미 몰락에 이른 자본주의가 아직도 견고한 물질 토대를 잃지 않고 있는 까닭은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 당시 경제가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남천이 이러한 사실에 전혀 무지했던 것 같지는 않다.

만주중공업이 작년 자회사에 불입한 총액이 삼억육천육백십사만원임

26) 만주 통치정책에서의 ‘내선일체’와 ‘오족협화’의 모순에 대해서는 신규섭, 『만주국의 치외법권철폐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식』, 대동문화연구 4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3 참조. 이러한 모순이 국내의 작가들에게 야기했던 분열현상에 대해서는 한수영, 『이태준과 신체제』,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참조.

27) 내선일체의 논리에 의거해 스스로를 이등국민으로 인식했던 재만 조선인들의 실상에 대한 연구로 윤희탁, 『만주국의 이등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집, 역사학회, 2003 참조.

니다. 재작년도의 불입총액 일억구백만원에 비하면 약 세배 반이 되지 않소. 그런 판에 우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지금 만업자회사의 공칭 자본총액이 팔억팔천오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이미 전액 불입이 된 것들입니다. 소화제강, 만탄경급속, 동화자동차 같은게 만업에 통제된 건 옛날이지만 그 후 만주광산, 만주비행기, 동변도개발, 만주자동차, 협화광산의 신설, 어쩌면 만주산업오개년계획의 줄을 타고 뻗어 나가는 세력인데, 우리 대흥 따위가 어느 틈에가 배겨내겠소.²⁸⁾

당시에 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만주산업5개년 계획’이라는 국책과의 연계를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 이신국이 경영하고 있는 대흥산업 역시 만주에 진출하여 이러한 경기에 편승하고자 하고 있었고 이는 당시의 국내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즉 만주와 연결되면서 식민지 자본주의는 더욱 견고하게 그 물질 토대를 갖게 된다. 그런데 김남천의 소설에서 만주는 공백으로, 그저 서구적 근대성, 국내 자본주의적 현실과 대비되는 위치에 설정되기만 하였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 결과 결국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김남천의 탐구 역시 국내적 풍속의 현상에 머무르고 만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풍속은 몰락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물질 토대는 견고해 보이며 이신국의 관대함, 은주부인과 송현도의 건재는 그 징후이다. 이신국은 딸에게도 타락한 음모의 주인공인 은주부인과 송현도에게도 관대하며 그리하여 실상은 소설의 서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것이다. 김남천은 만주가 이러한 국내의 현실과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 놓음으로써 이 관계를 더 이상 탐구할 근거를 잃어버린다. 서구의 온갖 사상과 소설론, 그리고 동양론의 새로운 대두를 두루 검토하면서도 실상 그는 소설의 육체를 이루는 풍속의 탐구에서는 국내적 현상에 머물렀던 것이다. 보충은 환상을 만들지만 또다른 실천이기도 하다.²⁹⁾ 덧씌워진 지배 이데올로기가 제국의 논리를 강화하는 실천이었다

28)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40.1.14.

면 그 공백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전복은 가능해진다. 김남천은 만주가 공백의 기표임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었다. 이는 절반의 실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과 만주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로 이어지는 대동아공영, 그리고 여기에 대립적으로 구축된 서구 연합군의 전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 조선의 식민지 경제와 그 풍속을 정확하게 해부해 낼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김남천의 현실인식은 상당히 협소한 부분에 머물고 있었다. 만주라는 이데올로기를 당시 제국주의의 지평 속에 놓지 않고서는 식민/피식민의 주체위치는 적절하게 설정될 수 없었다. 만주를 공백으로 비워놓음으로써 김남천은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식민지의 역관계를 온전히 서사의 육체 속에 그려낼 수 없었다. 김남천은 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말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의 시국을 감안할 때 만주를 통해 식민지 자본주의의 역관계를, 그 토대와 풍속의 실질적 면모를 탐구하는 일은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력을 거슬러 만주를 공백으로 놓는 서사방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당시의 시국에서 여러 제약이 따르는 만주 이데올로기에 대한 판단중지, 이는 김남천 문학에서 나타난 만주형상에 새겨진 성과이면서 또한 한계였다.

29) '보충이 곧 중심이다'라는 라캉의 명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지적의 논의를 빌자면, 상징 질서를 유지, 작동시키는 모든 기표는 '텅빈' 기표이며, 이 비어있는 기표를 둘러싼 '적대적인' 주체들의 투쟁이 상징 질서의 성격을 규정한다. 기표의 보충이 상징 질서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천'(지적의 용어로는 '행위')을 의미하지만, 상징 질서 '내'의 실천이며, 상징 질서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환상'(앞서 언급한 '판타지')인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Slavoj Žižek, *Interrogating the Real*. London: Continuum, 2005. 의 "Eclipse of meaning" 참고.

IV. 맺음말

이 글은 일제 말기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만주형상을 통해 당시의 시국에 대한 김남천의 시각을 점검하고 나아가 일제말기 작가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유지했던 긴장의 한 국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김남천의 문학에서 만주와 관련한 언급은 그리 풍부하지 않다. 그러나 분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 비중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다른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동양론이나 전향의 논리가 직설적인 어법으로 발화되었던 것에 견주어 본다면 오히려 작품의 구조 속으로 숨어 버린 만주문제는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작가의 복잡한 시선을 더욱 섬세하게 드러내는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만주형상은 크게 두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만주가 국내의 타락과 부패에 대비된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런데 그처럼 ‘다른’ 공간으로서의 만주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비어 있으며 그래서 만주는 ‘텅빈 기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만주가 국내의 타락과 부패에 대비된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을 통해 만주가 당대 동양론의 논의구조라 할 수 있는 ‘타락한 서구적 근대-새로운 동양의 발견’의 구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김남천이 당대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였던 동양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서구적 근대의 몰락’에 대한 감각때문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랑의 수족관>에 드러난 바와 같이 국내적 타락에 대비되는 공간이었고 그리하여 당시의 동양론에 대응된다고 볼 수도 있었던 만주형상은 비어있다. 이러한 ‘텅빈 기표’로서의 만주는 김남천이 당대의 동양론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거기에 온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와 이탈의 균열’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남천의 관심이 ‘동양론의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몰락해 가는 서구적 근대’의 풍속

에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이 단지 서구적 근대에 대한 미련이거나 향수 때문에 유지된 것은 아니다. 김남천이 본 것은 타락한 풍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였고 그렇다면 서구적 근대는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기본원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서구적 근대의 물질 토대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 동양론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위력은 공허해진다. 실제로 당시의 동양론은 전쟁의 전과, 그리고 서구에 대한 적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 이데올로기의 실질적 내용은 타자의 부정에 의해서만 보증받을 수 있는 허약한 것이었다. 김남천의 문학에 나타난 ‘텃빈 기표’로서의 만주는 이처럼 당대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그 공허함 자체로 드러내 놓았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의미는 부분적인 것이기도 하다. 공백의 기표를 비워 놓음으로써, 김남천 문학이 이르지 못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국 당대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논리가 만나는 접경지점, 그리고 국외에 세워진 판타지가 어떻게 국내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해 나가느냐에 대한 성찰이다. 서구적 근대성의 문제들은 김남천이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지표로 작용하였다. 김남천이 의식하였든 의식하지 못하였든 당대의 일본 제국주의가 탈서구를 표방하였으나 서구 제국주의의 작동구조와 그리 다르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이는 중요한 징후가 된다. 물론 김남천은 일본 제국주의의 작동구조를, 그리고 자본주의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결합과 재생산관계를 사유하는 곳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어 있는 만주, 지배 이데올로기의 공허한 중심을 향해 더 깊숙이 나아가야 했을 것이나 이는 식민주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모험이기도 했을 것이다. 텃빈 기표 앞에 멈추어 서 버린 개인 주체의 실천을 아쉬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텃빈 기표로 존재했으나 누구도 넘어서지 못했던 그 이데올로기의 작동

구조를 더욱 엄밀히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김남천 개인의 사유구조와 실천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에 그친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한계를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 그리고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김남천, 만주, 일제말기, 텅빈 기표, 이데올로기, 판타지, 이데올로기적 보충

참고문헌

- 김남천, 「소설의 장래와 인간성 문제」, 춘추 1941.3.
- 김남천, 「전환기와 작가」, 조광 1941.1.
-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8.1-1040.3.3.
- 공임순, 「식민지 시대 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형상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 7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6, 199-226.
- 곽승미, 「김남천 문학연구-인식적·미학적 원리로서의 근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년.
- 김외곤, 『한국근대 리얼리즘문학 비판』, 태학사, 1995
- 김재용, 「일제말 한국인의 만주인식」,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민족문학연구소 편), 역락, 2007, 13-42쪽.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62-104쪽.
- 서영인, 「근대인간의 초극과 리얼리즘」, 『국어국문학』 137호, 국어국문학회, 2004, 457-483쪽.
- 서영인, 「김남천의 신체제 인식과 우회적 글쓰기」, 『탈식민주의를 넘어서』(민족문학연구소 편), 소명출판, 2006, 171-191쪽.
- 신규섭, 「만주국의 치외법권철폐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식」, 『대동문화연구』 4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67-85쪽.
- 와다 도모미, 「김남천의 취재원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3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213-240쪽.
-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윤휘탁, 「만주국의 이등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집, 역사학회, 2003, 139-171쪽.
- 이경훈,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오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2003,

271-297쪽.

이수형, 「김남천 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철호, 「동양, 제국, 식민주체의 신생-1930년대 후반 김남천과 김사랑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6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3, 297-316쪽.

정종현, 「식민지 후반기(1937-1945)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차승기, 「임화와 김남천, 또는 “세태”와 “풍속”의 거리-1930년대 후반 “전환기”의 문학적 대응들」, 『현대문학의 연구』 2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83-117쪽.

최혜림, 「『사랑의 수족관』에 나타난 ‘일상성’의 의미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2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4, 243-269쪽.

한수영, 「이태준과 신체제」,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17-51쪽.

슬라보예 지젝(김종주 역), 『환상의 돌림병』, 인간사랑, 2002.

Slavoj Žižek, *Interrogating the Real*. London: Continuum, 2005.

<Abstract>

Namcheon Kim and Manchuria in the late Japanese Imperialism

Seo, Young-In

This article scrutinizes the works of Namcheon Kim in the late Japanese Imperialism mainly focusing on their relationships with 'Manchuria.' Japanese Imperialism tries to reinforce its dominant power by suggesting Manchuria as an ideological supplemen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Manchuria with regard to the dominant ideology of Japanese Imperialism, the figure of Manchuria in the literary works is an essential key for evaluation.

In the works of Namcheon Kim, Manchuria is shown as a 'void.' He presents colonized Korea as a space of corrupted conscious and distorted personality. In this sense, Manchuria could be a new fantasy irrelevant to national degradation. However, he resists against the Imperialist dominant ideology by denying describing Manchuria as a concrete and positive space. Manchuria as a void signifier means cease of judgement, which signifies his cognitive distance from the dominant ideology. For void Manchuria means hollowness of dominant ideology that leads to the revelation of falsehood in the logic of New Order of East Asia. What remains as a limit in his works is that he cannot link colonial capitalism to imperialism by its natural consequence.

Key Words : Namcheon Kim, Manchuria, late Japanese Imperialism,
void signifier, ideology, fantasy, ideological supplement